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2호 【루계 제26106호】 주체107(2018)년 8월 20일(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자

철의 기지에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북방의 철의 기지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맺맺이 들어서려는 불같은 열의에 넘쳐 김철로동계급은 지금 주체철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앙양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산하 당조직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과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공세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경제선동목표를 높이 세우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이 일어번지게 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든 당, 행정일군들이 산소열법용광로직장을 비롯하여 주체철생산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도록 사상공세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힘있는 직관선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체철증산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려는 김철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글발 《철강재로 당을 보위하자!》를 산소열법용광로 로체장진물야외벽면에 굵직하게 게시하여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 류주기장에는 대형구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를, 로체장안에는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라는 글발을 게시하여 주체철생산투쟁에 떨쳐나선 용해공들의 정신력을 비상히 고조시키고있다.

또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훌륭하게 일떠세운 류동층카스말생로의 본체에 대형자별표어 《자력갱생》을 게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초급당조직들에 내려가 직관선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한편 직관선동을 실속있게 하는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소개하면서 뒤떨어진 단위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웠다.

얼마전 당위원회에서는 산하 당조직들의 직관선동실태를 보여주는 특화편집물을 만들어 당, 행정일군들의 모임에서 방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직관선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 강철1직장,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모범은 널리 일반화되고 경제선동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일부 단위들은 분발하게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방송원들과 방송선전차원전사들의 책임성을 높여 그들이 아침출근길방송, 혁신자축하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방송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증산돌격운동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격동적인 방송선동은 일터마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기치가 더욱 높이 휘날리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일터마다에서 예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당위원회에서는 전시가요경연을 조직하였다. 경연조직요강을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단위들에서 경연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리고 산하단위 경연들에서 당선된 작품들로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기업소적인 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전투장에 울려퍼진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아무도 몰라》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승리의 7.27을 안아온 인민군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뜨겁게 심어주며 높이 메아리쳤다.

철의 기지에 힘있게 울려퍼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억세게 벼려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기술 확립

단천제련소에서

단천제련소에서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기술을 확립하였다.

이 기술은 디젤유와 중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아연정광배소로화입을 진행하는 미분탄착화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위들의 아연제련공정들에서 디젤유를 쓰지 않고 배소로화입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특히 나무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었고 열리용률도 높지 못하였다.

새롭게 착상한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시작부터 많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다.

하지만 당정책관철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투철한 자각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제련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 일군들은 신심있게 달라붙었다.

제련소당조직에서는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기술을 확립하는 사업을 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사상적인 문제로 여기고 모두가 이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참모부에서는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망라한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이들이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기술자들은 수많은 문헌연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실정에 맞는 배소로화입기술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설계연구집단은 공정설계를 책임적으로 하여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배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의거해야 할것은 과학기술이라는 관점밑에 앞선 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철판과 각종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미분탄분쇄와 수송계통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관철할 의지와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제련소로동계급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미분탄연소에 의한 배소로화입기술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유색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제련소로동계급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끓고있는 련관부문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화물자동차생산목표수행에로 총매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수행의 결승선을 향하여 내달리며 련일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들에서 부분품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조립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가까운 기간에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해 분발해나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이 안아온 결실이다.

현장지휘부와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서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점령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을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기간에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일별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여러 성, 중앙기관들과 과학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소재생산부문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로조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쇠물의 질을 높이고 차지당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 주물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은 가공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정밀가공직장에서는 가공프로그람을 갱신하여 맡겨진 부분품들의 가공에서 속도와 질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대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련합기업소적인 작전에 따라 새로 구성된 가공공정이 큰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그밖의 여러 직장, 분공장들에서도 련관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변속기와 송풍기날개를 비롯한 부분품들의 제작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협동품보장을 맡은 여러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마지막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돌파해치며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올해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할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례성강청년5호발전소 시운전 진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안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례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3년이 걸려야 한다던 발전소건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고 얼마전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례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례성강청년3호발전소 준공후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고 책임성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보강하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매주 협의회를 조직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는 등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례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발전기실굴착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해 압축기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증설하고 발파회수를 늘이였다.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장한 전투를 벌려 수만㎥에 달하는 휘수구라인과 발전기실라인공사를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기실라인공사중 큰물로 인하여 침수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봉산화학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발전소언제다리공사와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맡은 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보생산을 다그쳐나갔으며 발전기실기둥부재생산도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사리원시, 황주군, 서흥군, 신평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도 발전소건설로 침수될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수심정보의 농정지를 보호하였다.

이와 함께 맡은 발전기실주변정리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해놓았다.

발전설비조립과 옥외변전소설비조립, 발전소전기설비조립을 맡은 례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발전소정상운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설비조립을 비롯한 모든 작업들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사리원보이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맡은 설비제작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현장에 나와 걸리고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발전소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례성강청년5호발전소에서는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파기자 신경섭

운하종어사업소개건공사 마감단계

운하종어사업소개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보통강반에 야트하고 산뜻한 여러동의 건물들이 일떠서고 수십개의 야외못들이 일신되였다. 도로로장공사와 지대정리, 원림조성사업이 끝난 건설장에서는 양어설비들의 설치와 시운전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물고기종자와 먹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온갖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수산성의 일군들은 운하종어사업소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우량품종의 미꾸라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종자물고기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운하종어사업소개건공사는 여러동의 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수십개의 커다란 야외양어못들과 청사들을 개건확장해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수산성의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가 꾸려지고 내각청년동맹위원회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기초굴착과 건축공사에 투입되였다.

내각청년동맹위원회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의 요구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불굴의 투지와 용맹으로 차디찬 감탕속에서 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였고 집통과 맞들이에 의한 토량운반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기초굴착공사를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골조공사에 진입하여 높은 봉사속도를 기록하였다.

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건설지휘부에서는 내외부마감공사와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수산성의 일군들과 아래단위의 건설자들, 종어사업소의 종업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해 분발해나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이 안아온 결실이다.

현장지휘부와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서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점령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을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기간에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일별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여러 성, 중앙기관들과 과학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소재생산부문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로조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쇠물의 질을 높이고 차지당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 주물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은 가공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정밀가공직장에서는 가공프로그람을 갱신하여 맡겨진 부분품들의 가공에서 속도와 질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대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련합기업소적인 작전에 따라 새로 구성된 가공공정이 큰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그밖의 여러 직장, 분공장들에서도 련관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변속기와 송풍기날개를 비롯한 부분품들의 제작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협동품보장을 맡은 여러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마지막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돌파해치며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올해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할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최영조

련합기업소에서 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안고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현대적인 각 도양묘장건설 힘있게 진척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양묘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7월 강원도양묘장을 찾아주시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이 한계단 더 높아진 양묘장의 본보기가 건설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각 도들에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양묘장건설을 빨리 다그쳐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경쟁적으로 벌리고있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양묘장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또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자연원료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작업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이미 모든 건축물들의 지붕씌우기와 구내포장, 양묘장주변에 대한 쇠그물울타리치기 및 방풍림조성을 성과적으로 끝낸 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건물들의 내외부미장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양묘장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산림복구사업을 현시기 가장 중차대하고 선차적인 정책적과업으로 들어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양묘장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해 현신적으로 투쟁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판리청사와 종업원살림집을 비롯한 20여동의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 및 지붕씌우기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현재 모든 건물들의 미장실적은 70%계선을 돌파하였으며 설비제작 및 설치를 위한 준비와 주변녹화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평양시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현대적인 양묘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단위별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얼흘 남짓한 기간에 큰 10개 건축대상들에 대한 골조 및 외부미장공사를 결속하였다. 그리고 지붕공사와 함께 내부미장과 해당 설비들의 설치를 위한 준비와 구내포장을 위한 자재확보에 힘을 넣으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라선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양묘장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양묘장을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믿음직한 나무모생산기지로 하루빨리 일떠세울 불같은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시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작전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공사조건이 수시로 변하는데 맞게 건설력량과 수단들에 대한 집중과 분산, 재배치 등 전투조직을 보다 면밀하게 짜고들어 단위시간동안의 작업능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공사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시공단위들에서는 작업대상에 따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물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말려진 공사과제들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40여일만에 종업원살림집을 비롯한 14개의 건축대상에 대한 골조 및 내외부미장과 지붕공사를 결속한 시에서는 구내포장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평안남도에서 구내포장을 위한 지대정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다른 도들에서도 양묘장의 모든 요소를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되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정 론

질풍쳐가자 찬란한 래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마치도 우리가 딛고선 이 땅속에서 거대한 심장이 뛰고있는듯 온 나라 강산이 통채로 울리고있다.

어제는 조국의 서북단 신도군을 찾으시고 오늘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을 또다시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평북도에서 량강도에로, 함북도에서 강원도에로, 황남도, 평남도를 찾으신데 이어 또다시 단 며칠사이에 강원도와 평남도, 함북도, 량강도를 주름잡아달리시는 영원불멸할 초강도강행군의 화폭앞에서 천만의 심장 세차게 높뛰고있다. 명사십리의 대건설장과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조국의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시는 절세위인의 일행천리의 발걸음, 거대한 메아리를 일으키는 힘찬 발구름소리가 이 땅을 세차게, 세차게 뒤흔들고있다.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고 우리 원수님께서 새겨가시는 초강도강행군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보시라.

우리 원수님 찾으시였던 강원땅의 양묘장은 어디이며 온곡지구의 목장은 어디인가. 사회주의봄향기 감도는 사연깊은 일러며 인민의 기쁨을 그려보며 환히 웃으시던 북변의 양어기지는 또 어디인가. 한달 남짓한 사이에 두번이나 찾으신 삼지연군건설장과 대규모온실농장이 일떠설 경성땅은 수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런가.

놀라움에 앞서 격정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지구를 통채로 삼아내는것만 같던 삼복의 무더위도 이제는 고개를 수그리기 시작하였지만 잊을수 없는 이 여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도강행군의 자욱을 끝없이 새겨가시는 어버이의 심혈과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는것이 우리 원수님을 그리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며 더욱 뜨거워지는것이 원수님의 높으신 뜻으로 고동치는 인민의 불타는 심장이다.

* *

어이하여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강행군을 하셔야만 하는가.

나라의 한끝에서 울리는 세쌍둥이의 고고성도, 평범한 농촌마을 백살장수자의 기쁨도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시는 그이께서 과연 무엇때문에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먼길을 달리고 또 달리시며 아이들의 책가방문제도 직접 료해하시고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깊은 산골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의 용출량까지 헤아려보시는것인가.

자그마한 콤퓨터화면으로도 세계를 들여다볼수 있는 오늘날 국가수반들이 집무실이나 피서지의 별장에서 나라의 정사를 보는것은 너무도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다르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현지지도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말,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눈물없이 외울수 없는 시대어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하루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여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찌는듯 한 무더위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겨운 극심한 고온속에서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먼길을 달리고달리신 우리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는 얼마나 눈물겨운것이던가.

못 잊을 7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왔던 강원도양묘장의 제대군인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친다.

《글쎄 우리 원수님의 옷이 온통 땀으로 푹 젖어든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와 선풍기를 돌렸지만 날씨가 어찌나 무더웠던지 선풍기에서도 더운 바람이 나오는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나도록 속상했습니다.》

원산시의 낮 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40℃라는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찾아가던 휴식일에 우리 원수님을 만나뵙게 되리라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요란한 양묘장을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탄복하게 된다고,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당에는 일감을 줄 멋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뛰여다니는 강원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하시며 당에서 제시한 과업을 결사관철한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실 때 우리 원수님의 땀젖은 옷자락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은 뜨거운 눈물에 젖어들었다.

누구나 소원하였다. 그날의 현지지도가 삼복철의 마지막현지지도가 되기를. 하긴만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데 이어 평양으로 달려가시여 전승절을 맞이한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록엽에 메투장마저 휘여들것 같은 무더운 날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고 또다시 현지지도강행군의 머나먼 길을 이어가시였다.

현지지도강행군, 그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한생이기도 하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로선과 정책을 세워나가신 우리 수령님들께 있어서 현지지도는 인민과 뜻과 정을 나누시는 길이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 무더운 한여름에도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포전길을 걸으시였고 우리 장군님 야전복을 땀으로 적시시며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이어가신것 아니랴.

강행군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길이였다. 갈길은 멀고도 먼데 차례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스물네시간이여서 휴식일과 명절날까지 바쳐가시며, 분분초초를 쪼개가시며 끊임없이 달리고달리시였다.

현지지도강행군, 어기에는 조국과 인민이 목격하는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있으며 우리 인민이 마중가는 찬란한 미래의 리정표가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에서 인민을 위하여 천만리 먼길도 웃으며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영상을 뵈왔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져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원수님의 진정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사랑하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과 문명을 마음껏 누릴 그날을 하루, 한시라도 앞당기시려는 열망으로 가슴끓이는분이시여서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국각지의 수십개 단위들을 일행천리하시며 번영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주신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과 더불어 이 땅은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으로 천만군민을 무장시키는 거대한 교정으로 화하였다.

삼지연군을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읍지구의 면모만 일신시키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개변되게 하여야 한다. 삼지연군에서는 군을 봉산주의리상향으로 꾸려가는 행정에서 마땅히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였는가를 폐부로 절감하게 해야 한다.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정신이며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투쟁본때, 투쟁기질로 새로운 기적과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

우리는 블로크 한장을 쌓아도 우리 국가의 권위를 생각하고 또한 후대들앞에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만년대계로 하여야 한다. …

우리 원수님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주시던 간곡한 가르치심들, 들꽃에로 부르는 신호나팔소리와도 같으며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붉은 기발과도 같은 이 금언들을 하나로 합치면 혁명의 귀중한 교과서가 될것이다.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의 거룩한 실록을 펼쳐보면 조국과 혁명의 앞길이 환히 보인다. 대담한 작전과 박력있는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야 할 선도자, 기마수가 되여야 할 일군들의 임무도, 모든 분야에서 기관차, 견인기의 역할을 해야 할 령도업적단위들의 본분도 다 밝혀져있다.

그이의 강행군은 단순히 경제실무적대책을 위한 현지지도가 아니라 인민의 심장속에 혁명의 진리를 새겨주어 보다 큰 승리와 기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의 강행군, 신념과 의지의 강행군이다.

과연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건설이 30여년전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에 대한 집행으로 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시효가 없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주는 이 사실앞에서 혁명가의 량심과 도덕, 의리에 대하여 누군들 생각해보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전사, 제자라면 응당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안고 무조건 관철하는데서 생의 희열을 찾아야 하며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면 누구나 뼈가 부서지는것과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원수님의 강행군현지지도를 받으며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분자그대로 혁명의 백과전서였다. 조성된 난국을 뚫고 단숨에 비약할수 있는 일행천리의 전술도,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백전백승의 전략도 모두 가르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발걸음이였다.

위편이 젖던 공장, 조건이 불리한 단위들에는 전형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앞서나가는 단위들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그이의 현지지도자욱을 따라 온 나라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조국의 백년천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본보기, 기준들이 창조되는 속에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은 삼지연군이 드디어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서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최대규모로 되는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의 휘황한 전망도가 펼쳐진 우리 조국은 벌써 9월의 광장을 지나 다음해 어머니당창건기념일에 드릴 뜻깊은 선물들을 마련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과 더불어 눈부시게 달라지는 조국의 전변상을 날날이 목격하는 우리의 가슴은 왜서 그렇듯 뜨겁게 달아오르는가.

불과 두달도 안되는 사이에 번영에로 가는 조국의 진군속도를 더욱 가속시킨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 누구나 선택할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였다.

인민의 앞길을 밝힐수 있는 예지의 빛발이 넘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위대한 선구자만이 갈수 있는 혁명의 길이였다.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천만의 맨 앞장에서 온갖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며 피타는 로고와 헌신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자욱자욱이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리정표로 찬란히 빛나고있기에 그이의 발자취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인민은 심장으로 따라서는것이다.

우리 원수님처럼!

이것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중적진군에 궐기하게 한 추동력이며 오늘의 력사적투쟁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과감한 실천의 기준이다.

우리 원수님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며 우리 원수님처럼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보검을 더욱 억세게 벼리고 우리 원수님처럼 백옥같은 량심과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그것이 위대한 선구자의 강행군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는것이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

그 어떤 공식적인 호소문이나 권지도 없었다. 하지만 인민의 심장을 통채로 틀어잡는 이 세상 가장 힘있는 호소가 있었고 피가 펄펄 끓어번지게 불리일으켜주는 위력한 격문이 있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현지지도강행군이였다.

일군들이여, 공화국의 통성번영과 민족만대의 행복을 위한 력사적인 분기점에 그대들이 서있다.

순간이라도 마음의 항계를 늦추면 그이의 강행군속도에 따라설수 없고 잠시라도 헛눈을 판다면 눈앞에 다가온 승리의 그날이 아득히 멀어지게 되는 오늘의 투쟁에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대고조의 물화를 지펴올리며 기세차게 나아가는 다른 도들을 뒤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강원도가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신의 발원지가 되고 당이 준 과업이라면 그 무엇이든 자체의 힘으로 척척 해내는 전국의 본보기도로 될수 있은것은 결코 세월의 흐름이 가져온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뼈를 깎고 피를 태우는 심정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강원도 일군들의 투쟁경험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관철전의 운명이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다시금 시사해주고있다.

도들마다 경제력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당정책을 접수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에서는 티끌만 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정책을 그 어떤 지시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강행군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당부로 새겨안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관철해나가는 일군만이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는 진짜배기선도자, 기마수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강행군과 더불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어마냥 울려오는 부름이 있다.

령도업적단위들.

한평생 인민을 찾아 수천수만리 먼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는 얼마나 헤아릴수 없이 많은 령도업적단위들이 태여났던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련전련승을 떨쳐온 근위부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으로 원쑤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주고 천만군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주던 무적의 전투대오는 결코 총포탄이 작렬하는 싸움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력사적인 증산돌격운동에 총궐기한 오늘 조국은 모든 령도업적단위들이 당에서 제시한 전투목표를 단숨에 점령하며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제재와 봉쇄의 포위망을 통쾌하게 짓부시고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오직 하나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결사분투하는 오늘의 근위부대, 전화의 《105땅크사단》과 《4보병사단》, 《안동12보병사단》과 같이 그 이름만 들어도 원쑤는 전률하고 인민은 승리의 신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전투력있고 힘있는 단위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건설대진군의 근위부대, 바로 어기에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기관차, 견인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령도업적단위들의 일본새와 투쟁기풍이 응축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령도업적단위들이여,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근위부대가 되자.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받아안은 령도업적단위들이 전화의 근위부대들에 차넘치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멸적의 기상으로 산악같이 일떠서 진군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나갈 때 경제건설전반에서는 승전의 로성이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다.

각오만 든든하면 누구나 강행군의 전두에 설수 있다.

두번이나 제대미를 떨어버리며 전국의 위업을 성취하고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한 슬기와 용맹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속에 넘쳐흐르고있다. 오직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온 일심단결의 그 신념이 총진군대오의 힘을 백배해주고있다.

천만군민이여,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태여나 사회주의건설을 고무추동한것처럼, 우리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성강의 봉화, 강선의 불길이 타올라 새로운 대고조의 시대를 펼친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의 자욱자욱을 따라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계가 보란듯이 창조하자.

모두가 시대를 뜯끓이는 증산돌격운동의 세찬 열풍속에서 천리마시대의 진응원, 길확실, 리신자와 같은 시대의 선구자들로 새롭게 태여나자.

경성군에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제일 선참으로 농장에 진출한 청진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아름다운 소행, 이것이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과 더불어 나날이 개변되여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상태이다.

위대한 인민이여, 모두다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든든히 조이고 시대를 선도하는 강행군대오에 한마음한뜻으로 합류하자.

그대들이 지켜선 모든 초소와 일터가 우리 원수님의 강행군길과 이어져있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든지 원수님을 모실수 있게, 기쁨과 만족만을 드릴수 있게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자.

누구든 대진군의 그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면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생각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번영의 70년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이 있어 세기적변혁의 력사 영원하리

새로운 시대정신의 고향 강원도를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 강원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고향으로,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강원도, 금상첨화라는 말과 같이 세계에 널리 소문난 산천경개의 수려함이 정신력강자들의 숭고한 세계와 어울려 더더욱 아름다운 고장!

불강원도, 들강원도로 불리우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고장이 로동당시대에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되였던가.

강원도는 장장 70성상 인민을 품어안고 인민의 아름다운 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백승떨쳐온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다. 우리는 강원도에 대한 열흘낮, 열흘밤의 기행길을 달리며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인민을 낳고 위대한 강국을 일떠세운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정신력의 강자들

항구문화도시인 원산시의 풍경은 볼수록 이채로왔다.

해안가로부터 동명산지구로 올라가면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선 시내의 전경은 마치도 긴 꼬리를 활짝 펼친 공작새의 자태를 연상케 한다. 밤에는 밤대로 조명화, 예술화된 불장식으로 하여 신비경의 세계가 펼쳐진다.

로동과 생활의 열정이 약동하는 거리들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고무추동하는 구호판과 선전화들이 나붙어있고 방송선전차들의 힘찬 선동과 노래소리가 차넘쳐 광명한 미래에로 비약하며 내달리는 시대의 벅찬 숨결이 한껏 느껴진다.

해안광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에게 도혁명사적관의 일군은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강원땅을 처음으로 찾으신것은 지금으로부터 73년전이였습니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 비껴든 강원도는 어떠했던가.

게딱지같은 판자집과 함석집들이 볼품없이 널려져있고 먼지구름이 온 시내를 휘감아 한산하기 그지없는 고장…

한마디로 강원도는 현대문명에서 아득히 뒤떨어진 해방된 조선의 축소판이였다.

바로 그때에였으리라.

시대밖에 밀려났던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 백두의 눈비에 젖은 신끈을 풀지 못하시고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도혁명사적관을 참관하는 우리의 걸음은 한장의 편지앞에서 멈춰섰다. 70여년전 평강군의 리제산녀성이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린 편지였다.

해방전 지주집 부엌데기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늘 설움과 고통속에 살아오던 리제산녀성, 해방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꿈같은 삶을 누리게 된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릴 마음으로 자기가 가꾼 곡식들에서 밀 한가마니와 감자 두말을 알알이 골라가지고 평양으로 떠났다.

몰소 리제산녀성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까막눈인 그에게 글을 알아야 사는것 같고 새 조국건설에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성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년말에는 자필로 편지를 써보내라고, 나와 꼭 약속하자고 하시였다.

마을로 돌아온 리제산녀성은 열심히 공부하여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고 수령님께 약속한것보다 40일앞당겨 자필로 편지를 써올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발단된 문맹퇴치운동(일명 《리제산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는 1949년까지 전국적으로 230여만명의 문맹자가 완전히 퇴치되여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로 되였다.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강원도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카야 살길이 열린다고 억센 신념의 토로를 터친 법동농민, 예술영화 《어머니는 포수였다》의 주인공원형인 리수덕녀성, 전선원호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금강의 세 동서와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하여 불굴의 정신력의 소유자들로 자랑떨친 강원땅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되새기며 우리가 다달은 곳은 창도군 대백리였다.

무연한 논밭들이 바둑판처럼 펼쳐진 장쾌한 전경을 호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리의 일군은 감회깊은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흰바위들로 뒤덮인 백옥산앞에는 예로부터 폐 넓은 땅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장을 대백마을, 대백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쓸모있는 땅은 별반 없었다. 해방후부터 대백벌에 그래도 논이라고 부를수 있는 땅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것마저 전부가 뙈기논이였다고 한다.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 겹쌓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찬바람 부는 이른새벽 이곳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습니다.》

토지정리로 대백벌은 천지개벽되였다. 대를 두고 물려오던 봉건적주름이 자취를 감추고 이 고장 사람들도 서해벌방 부럽지 않은 드넓은 포전에서 기계농사를 마음껏 지을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려주신 토지정리의 첫 포성은 사람뿐아니라 토지까지도 봉건적질곡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력사의 승전포성이였으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인민이 어떤 안목과 일본새를 지녀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또 하나의 사상혁명포성이였다.

우리는 온 나라에 소문난 강원도의 전력생산기지들에로 기행길을 이어갔다.

우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원산청년발전소였다.

고미한천의 천연암반에 깊이 뿌리박고 산악처럼 솟아난 언제며 산허리를 휘감으며 망망히 펼쳐진 대인공호수, 아슬한 산머리를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아름드리압력철관로들, 번듯하게 일떠선 발전기실들…

강원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악전고투하여 일떠세운 원산청년발전소의 웅자는 불굴의 정신력만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소리쳐 웨치는듯싶었다.

강원도에 강력한 수력발전기지를 형성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결심이였다.

산지비중이 90여%이고 50리길이의 강하천만 해도 약 200개나 되는 강원도에서 제일 혼한것이 물과 돌이다. 이러한 자연조건은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여왔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슬기와 배짱을 키운 강원도인민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수수천년 잠자던 심산유곡에 대규모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워 자력자강의 역센 터전을 다지였다.

하기에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시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것 아니랴.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더듬으며 아담하게 들어앉은 발전소마을을 보니 우리 장군님께서 이곳의 한 제대군인부부의 아기에게 몸소 지어주신 《김광명》이란 이름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얼마나 뜻이 깊고 아름답고 희망찬 이름인가.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 광명한 래일의 주인이 될것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신이 담긴 그 이름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강원도인민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속절없이 흐르던 《건달강》을 전기강, 버림받던 돌을 보배돌로 전환시켜 들강원도, 불강원도를 《불강원도》, 《강성도》로 만들었다.

어디 가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어 볼수록, 들을수록 커다란 흥분에 휩싸이게 되는 강원도의 전변상을 하루빨리 전하고싶은 충동을 안고 우리는 위대한 정신력의 산아—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우에 올랐다. 언제우에서 우리는 발전소건설의 나날을 잊을수 없어 때없이 여기로 찾아오군 한다는 원산시의 녀성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제일 절감한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니 한결같이 말하였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것입니다.》

확신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속에서 불굴의 투사들로 성장한 강원도사람들은 생각하는 바도 달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지난 수십년간 간고분투하여 조성한 발전능력과 맞먹는것을 새로 조성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도자체의 힘으로 여러개의 발전소들을 동시에 건설해나가고있는 이들의 담력과 배짱은 또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번영하는 길이다!

자력자강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자!

강원땅은 이렇게 소리치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솟구치고있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전렬에서 용감무쌍히 돌진하는 제1번수, 바로 이것이 절세위인들께서 품들여 키우신 강원도인민의 모습이였다.

철령에서 마식령까지

철령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리정표가 우리앞에 나타났다.

산이 많아 령도 많은 우리 나라이건만 그 수백수천의 령길이 어찌하여 이 철령과 하나로 이어져있는가를 되새겨보게 하는 혁명의 령길이 시창으로 안겨들었다.

병풍마냥 아아하게 솟아있는 절벽을 감도는 아흔아홉굽이의 령길, 그야말로 아득히 펼쳐진 수림의 바다, 이끼푸른 두텁고 깊다란 웅벽, 아찔한 낭떠러지들, 이름모를 새들의 지저귐소리, 숲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향기…

이 모든것이 한데 어울려 대자연의 일만경치를 이루고있는 철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이 령길이 넓고 평탄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넘나드시던 그때에는 몹시도 협소하고 위험천만한 길이였다고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하였다.

언제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철령을 추억하시며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나는 철령을 많이 넘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넘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었으며 낮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었다. 지금도 철령의 험한 령길들과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눈에 선하다. 나는 철령을 잊을수 없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또 찾으신 우리 장군님,

장마비에 산사태가 쏟아질 때도, 눈보라 사납게 휘무짖고 령길이 얼음강판처럼 미끄러울 때에도 철령을 넘고넘으시며 고난의 겨울을 물리치고 강성번영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이 사무쳐와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달아오르는 마음을 안고 령길을 오르는 우리의 귀전에 철령도로관리원들이 부르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라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귀기울이느라니 이 노래를 창작한 로병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얀 아영모를 쓴 아이들이 소년단기발을 휘날리며 굽이굽이 뻗어간 산길을 따라 행진해가는 모습, 전선길의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이윽토록 바래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철쭉꽃바다 펼쳐진 철령의 언덕길옆에 발동을 건채로 서있는 야전차…

어떻게 노래에 그 모든 세부들을 방불히 그려낼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말했었다.

그 세부들은 내가 그려낸것이 아닙니다. 최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승용차를 누구보다도 많이 뵈온 강원땅의 한사람으로서 력사적인 화폭을 미숙하게나마 가사에 담았을뿐입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이것은 단순히 노래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선군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의 대명사이다. 그이의 조국관, 인민관, 미래관이 응축된것이 선군혁명령도이며 철령은 그 력사적증언자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고귀한 혁명생애가 슴배인 철령을 붉은 철령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철령의 정점에 오르니 가지마다 람스럽게 열린 사과들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이 그대로 꽃으로 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열매로 맺혀 강원땅의 자랑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기쁨이 된 철령아래 사과바다였다. 전선지대의 무릉도원은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시려 철벽의 성새가 되고 밑거름이 되신 위대한 조국수호자, 인민의 어버이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철령을 내린 우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돌아보았다.

동화속의 그림과도 같은 학교와 락아소, 유치원들, 편의봉사시설들로 벌써상을 펼친 세포군 성산지구도 활활했지만 특색있는 살림집구역과 더불어 현대적인 고기가공공장과 사료가공공장까지 일떠서 축산기지로서의 면모가 뚜렷한 평강군의 모습도 참으로 이채로왔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농산과 축산결합의 통합생산체계를 도입한 종합생산지령실의 콤퓨터화면앞에 서니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실태를 한눈에 볼수 있었다.

무연한 콩판우에 양, 염소떼들이 구름처럼 유유히 흐르는 목가적인 풍경에 취한 우리에게 이곳 일군은 말했다.

《아마 풀풍년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을겁니다. 여기 등판마다에서 지두는 풀풍년은 머지않아 고기풍년, 젖풍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세포등판을 고기등판이라고 하지요.》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가슴흐뭇한 이야기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이 땅의 현실을 가슴뿌듯이 안아보며 우리가 당도한 곳은 안변군 천삼리였다.

마중나온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을 감명깊게 들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한그루의 감나무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분명 3052알이야.》

《아니, 3066알…》

《틀림없이 3073알일거요.》

저마다 제가 옳다고 싱갱이질을 하는 그들을 보며 동행한 일군이 우리에게 그 감나무에 깃든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해 10월 천삼마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관리위원회사무실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주렁진 감들을 보시고 감이 익을 때에는 대단히 보기 좋다고, 천삼마을과 같이 감나무가 우거지고 살기 좋은 농촌을 가리켜 지상락원이라고 한다고 하시며 감알이 몇알이나 달렸음직한가고 물으시였다. 제각기 500알, 600알, 700알 하며 어림짐작의 수자들을 꼽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는 800알 됨직하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이곳 일군들이 사람들과 함께 감을 따서 세여보았는데 신통히 803알이였다고 한다.

사연깊은 이 나무는 해마다 알수가 늘어나 지금은 3000알이 훨씬 넘게 달리고있다는 그의 마감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803알로부터 3000여알로!

그것을 어찌 나무의 성장과 함께 늘어난 감알수로만 볼수 있으랴.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년대와 년대를 이어 나날이 커만 가는 이 땅의 행복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의미깊은 수자였다.

강원땅의 곳곳에서 끝없이 울려퍼지는 전변의 노래, 문명의 교향곡들로 하여 흥분된 우리의 격정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령이 너무 높아 말들도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이라 불리운 여기 산발들에 일떠선 스키장은 수십만㎡의 면적에 봉연장길이가 근 11만m에 달하며 40~120m의 폭과 여러가지 형태의 삭도가 구비된 초급, 중급, 고급스키주로들로 이루어져있다.

고급호텔들의 넓다란 호실마다 놓여있는 고급침대들과 침구들,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설비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속속들이 슴배여있었다.

우리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았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부자들이나 맛볼수 있는 문명을 조선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누리는데 대하여 진정으로 터친 찬탄의 목소리도 감상록의 구절구절에서 읽을수 있었다.

마식령의 정점인 대화봉에 올라 도안의 곳곳을 굽어보느라니 강원도야말로 내 조국에 펼쳐진 행복의 세계, 문명세계의 축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쳤다.

천하제일의 명산—금강산, 관동팔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삼일포, 시중호와 총석정, 울림폭포를 비롯한 명승지들, 아이들과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은 소년단야영소들과 해수욕장들, 황금해의 새 력사를 노래하는 동해의 이채어경, 풍요한 전야들과 푸른 숲 실레이는 산림들…

절세위인들의 축복안고 강원도는 사회주의강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고있다.

우리와 만난 도의 책임일군은 인민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시려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의 맨 앞장에 서려는것이 강원도사람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강원도인민들의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를 우리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에서도 느꼈고 무연한에 의한 환원철생산공정을 확립한 문천강철공장에서도 절감했으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원산구두공장과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도 보았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여기에 강원도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것이다.

지난 7월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일군들과 인민들을 또다시 높이 평가하시였다.

장장 70여년을 절세위인들의 이런 열화같은 정과 사랑속에 강원도인민들이 살며 투쟁해왔다. 이런 사랑과 믿음, 헌신과 로고속에 우리 조국이 강해졌고 우리 인민모두가 불굴의 투사들로 자라났다.

가까운 앞날에 강원땅은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 세인이 부러워하고 찾고싶어하는 리상향으로 자랑떨칠것이다.

* * *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량강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기행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끝나게 된다.

기행의 나날 우리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긍지높이 되새겨보며 내 조국의 무궁무진한 힘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을 백승에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이 있고 당의 령도를 충정다해 따들어가는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이 땅에 흐르는 세기적변혁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며 공화국의 강성번영과 더불어 우리의 기행길은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 성 남
본사기자 조 경 철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특파기자 신 천 일

건설에서 자기 지역과 지방의 특성을 적극 살려나가자

중심고리로 틀어쥔 시공의 전문화

강원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에 강원도에서는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건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국의 본보기로 일떠선 도양묘장을 돌아보시면서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는 강원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일본새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의 일군들앞에는 도안의 중요대상건설들을 맡아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하다면 아름차고도 방대한 대상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관리국의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건설대상들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해당 부서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힘을 넣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원산군민발전소 발전기실건설이 진행될 때에 있은 일이다. 물조공사가 끝나고 내외부미장작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건설장을 돌아보던 관리국책임일군은 미장작업이 끝난 벽체의 한 부분에 시선을 돌리였다. 다른 부분과 달리 벽체미장이 시공의 요구대로 원만히 되여있지 않았다. 시공지도를 책임진 관리국의 일군은 건설기업소들에서 기능공들이 부족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것이였다. 결국 다시 반복시공을 하다보니 그만큼 로력과 자재, 시간이 랑비되고 건설기일을 보장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였다.

도안의 여러 건설장들을 돌아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관리국책임일군은 이것을 단순히 기능공부족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라고만 보지 않았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따져보는 과정에 그는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시공지도를 원만히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관리국에서는 일군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그중의 하나가 일군들이 새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도록 한것이였다. 일군들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설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한 군인건설자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자는것이 관리국책임일군들의 의도였다. 이렇게 되여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였다.

결과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도안의 건설대상들에서 제기되는 아무리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풀수 있다는 신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종전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었던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의 사업에서 다른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시공을 전문화할수 있게 산하단위 건설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는것이다.

우선 건설기업소들마다에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아무리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다고 해도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원만히 갖추지 못한다면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한개 단위를 본보기로 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모를 박는것과 함께 그 단위 일군들이 전국의 이름난 건설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해마다 진행되는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면서 우수한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생산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건설단위들에서 건설력량과 함께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원만히 갖추도록 여러 계기점들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하여 최근에만도 관리국아래 모든 건설기업소들은 여러가지 능률높은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대동산샘물공장, 도수산사업소건설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서 한층 단단히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관리국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고회석생산기지를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들을 새롭게 일떠세우고 도의 자원과 기술로 대상건설을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완공된 도양묘장의 제대군인부부가 살고있는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외부의 마감처리를 색유리알미장으로 특색있게 한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신 그 대상이 바로 관리국아래 건설기업소들에서 맡아 시공한것이다.

지금 관리국의 일군들과 아래단위 건설기업소건설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삼지연군무리기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은 물론 도안의 건설장들마다에서 관리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한층 단단히 맡아하고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실력을 높이는 사업과 함께 건설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 때 자기 도의 특성에 맞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전망계획을 세우고 모가 나게

선천군에서

선천군에서 군건설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모가 나게 일을 해제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건설계획을 잘 세우고 도시를 전망성있게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수백세대의 아빠트살림집들과 여러동의 공공건물건설을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설계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이 건설을 시작한것은 석달전이다. 그런데 벌써 많은 건물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특징적인것은 일군들이 건설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건설대상들을 설계의 요구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살림집건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군소재지를 훌륭하게 꾸릴 높은 목표를 제기한 군에서는 건설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첫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그들은 수십동의 아빠트살림집들을 훌륭하게 건설하자면 설계의 요구대로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였다.

이를 위해 군책임일군들은 현장지휘부에서 일하게 될 시공일군들을 실력이 높은 일군들로 선발하고 그들에게 측량기와 콤퓨터 등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시공일군들의 자각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군당책임일군은 건설현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어느날 아빠트살림집건설장에 나간 그는 공사진행정형을 알아보다가 속도보장에만 치우치면서 벽체축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는 시공을 맡은 일군에게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울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건설을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었다.

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사고관점과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건설자들은 하나의 벽체를 쌓아도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속도를 보장하자면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수백세대의 아빠트살림집건설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아빠트살림집건설만이 아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교원재교육강습소, 군버섯공장, 군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어린이교통공원, 로하소학교, 진도고급중학교, 송현고급중학교 등 여러 대상의 공공건물건설이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선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실천의 구호, 애국의 구호로 삼고 모든 건축물들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오영철, 손해정동무를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은 군소재지를 전변시키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있다.

일군들은 자강력을 혁신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철근, 목재, 흙석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해 앞세를 메고 달려고있다.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절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진취적인 일본새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안아오고있다.

온 군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축물들이 정평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산골의 정서를 한껏 살려

회창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산골군인 회창군에서 농촌마을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다.

신지동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들어서니 마지막단계에서 건설되는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산골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산뜻하면서도 아담하게 일떠선 건물들은 보기도 좋았지만 내부역시 흠잡을데 없었다.

더우기 이채로운것은 살림집들에는 물론 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선전실, 학아소, 목욕탕에도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것이였다. 살림집들 뒤산에는 밤나무들이 우거져 일명 밤나무동네로 불리우는 이곳은 하천도 끼고있어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우리와 만난 손형철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제7작업반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설계되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군일군들은 새로 입사하는 세대들에 물공급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모를 박았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물원천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여러곳을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물원천을 찾아냈다.

라산해본 결과 이곳의 물량이면 겨울철에도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집수정을 만들고 상수도관을 놓여 먹는물이 흘러들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장기와 윷놀이, 씨름과 배구경기를 할수 있는 구역에 생활타리를 형성한것도 좋지만 목욕탕을 설계한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또한 군에서는 산골군의 실정에 맞게 부엌아궁을 나무도 때고 석탄도 땔수 있게 해주어 집주인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닿는 문손잡이를 든든하게 해준 하나의 세부를 놓고서도 군일군들이 인민들의 편리보장에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군책임일군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 자체로 생산한 블로크를 리용하도록 하였다.

사실 군에서 만든 블로크는 경제적효과성이 있었다. 자기 지방의 건재를 리용하면 천가 적게 들뿐아니라 장마시기에 습기의 영향도 적게 받고 겨울철에는 방안온도보장에 유리하였다.

군에서는 건설에 이 블로크를 리용하게 하였다. 결과 10여세대분의 세멘트가 절약되였다. 결국 적은 세멘트로 살림집을 건설하여 나라에 보탬을 준셈이였다.

지금 군의 일군들은 설계를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자기 지방의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촌마을들을 훌륭히 꾸리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실정에 맞는 건설공법을 받아들여

흥주청년4호발전소건설장에서

강계시의 장자강기슭에 흥주청년4호발전소가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있다.

이 발전소의 특징은 언제가 공기채움식고무언제로 되여있는것이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공기채움식고무언제는 콩크리트언제와는 달리 수분, 기중기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조가 간단하다. 따라서 세멘트, 강재, 목재소비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공사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함에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도일군들은 대담하게 공기채움식고무언제로 되여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을 실리가 나게 하여야 합니다.》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건설자들이 언제기초콩크리트치기와 발전기실공사에 진입하였을 때였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콩크리트혼합물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당앞에 결의한대로 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자면 결정적으로 콩크리트혼합물운반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하지만 건설장에는 기중기도 없었고 지형상특성으로 하여 화물자동차로 콩크리트혼합물을 운반할수도 없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물재선별로부터 혼합과 운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흐름식으로 진행할수 있게 개조할것을 결심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함께 사색과 탐구의 밤을 밝히기도 하고 대중속에서 탐구되는 혁신적인 안들을 현실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짧은 기간에 자동흐름식공정을 완성하였다. 결과 자동흐름식공정이 온을 내면서부터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되였다.

새로운 형식의 발전소건설을 맡기하고 실리에 맞는 건설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이들의 투쟁기풍은 따라배울만하다.

특파기자 김순홍

지방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

사리원시주택보수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사업소일군들인 민경일, 리철웅동무들과 종업원들은 외장재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가지였다.

중요하게 론의된것이 바로 도에 흔한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것으로 하여 가능성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때 민경일동무가 조용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방자재를 적극 리용하라는것은 당의 요구입니다.

누구나 이 사업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사상적인 문제로 보고 떨쳐나선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곧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여러가지 색감원료를 찾기 위해 여러곳을 매주밤듯 다니였고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가지다 기술자들에게 안겨주며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밤을 밝힌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기어이 지방원료를 가지고 외장재를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소에서는 외장재생산에서 많은 몫에 해당하는 원료를 도에 있는것으로 보장하면서 생산을 내밀수 있게 되였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수십t의 외장재를 생산하여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나날이 번모되여가는 사리원시의 모습을 보며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를 적극 리용하여 더 많은 외장재를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과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을 만났다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있는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18일 죠꼬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과 만났다.

죠꼬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 단장인 리룡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죠꼬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리룡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한편 이날 우리 고위급대표단은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총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담화들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인도네시아의 자까르따에서 개막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가 18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까르따에 있는 붕카르노경기장에서 개막되였다.

죠꼬 위도도 인도네시아대통령과 아시아올림픽리사회 위원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고위인사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과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45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들이 입장하였다.

통일기를 앞세우고 북과 남의 선수들이 개막식장에 함께 들어서자 관중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환영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국기가 게양되고 인도네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올림픽리사회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이 대회개막을 선포하자 아시아올림픽리사회 기발이 게양되였다.

인도네시아의 력사와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이 진행되였으며 봉화대에 불이 지펴졌다.

1만여명의 선수들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40개 종목의 465개 세부종목경기에 참가한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 활발히 전개

각지 직맹조직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여 상반년기간에만도 5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을 창안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전력생산설비들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로 직맹원들을 불러일으켜 순환수뽐프들의 능력을 훨씬 높임으로써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룡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카스발생로의 성능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질소비료를 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직맹원들은 전력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원료투입장치제작에 기여하였으며 단천세멘트소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던 고압전동기의 기본장치를 기술개조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려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예견성있는 큰물피해막이작전

사동구역 금탄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지속되는 고온과 가물피해막이전투가 시작되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하루총화모임에 참가하였던 사동구역 금탄농장 초급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한동안 놀라운 기색이 비껴들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와 함께 큰물피해막이전투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겠다는 임원룡판리위원장의 말이 선뜻 리해되지 않았던것이다.

(혹심한 가물이 지속되고있는데 큰물피해막이전투라니?)

그렇게 생각할만도 하였다. 모든 로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물과의 투쟁을 진행하는것만해도 여간만 아름찬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더우기 장마철을 앞두고 물길을 집적으로 정리하고 배수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빼기시설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짜고드는 등 여러가지 일을 앞질러 해놓았다고 생각하고있는 초급일군들이였다.

그들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판리위원장은 그 리유를 차근차근 설명해나갔다.

물론 지금까지 가물이 계속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또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모든것을 집중하다나니 로력도 긴장하고 기계설비도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큰비가 쏟아질수 있는 만일의 경우도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 농장은 대동강을 끼에 두고있는 지역적특성으로 하여 그 어느 단위보다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미전에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워놓은데 만족하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다가 일단 예상치 못했던 큰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에는 벌써 늦는다. …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더우기 이 사업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아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함에 대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자고 하는 리당위원장의 말은 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속되는 가물과 큰물피해막이전투성과를 놓고 우리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당과 인민앞에 검증받자. 모두의 심장이 이 하나의 지향으로 고동쳤다.

하기에 이날의 총화모임은 그대로 지속되는 가물과 큰물피해막이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담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진 작전회의로 전환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나갈 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작전안을 세워나갔다.

조건이 주어지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조성하여야 한다.

이들은 담벽도 밀고나갈 기세로 달라붙어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았다. 누구나 자리를 차고일어나 창발적견들을 내놓으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는 현실성있는 묘안들이 합쳐졌다.

다음날부터 농장이 더더욱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이 앞재를 메고 내달렸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판리위원장은 조건이 제일 어렵고 불리한 작업반에 전투좌지를 정하였고 리당위원장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나가기 위한 화선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나갔다.

안명길기사장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여러가지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들을 일떳비료주기하여 농작물의 가물견딜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작업반포전들마다에서 가물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한포기의 곡식도, 한평의 부침땅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두가 날마다, 시간마다 실적을 높여나갔다.

결과 농장에서는 지속되는 가물만이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큰비가 쏟아져도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대책들이 빈틈없이 세워지게 되였다.

농작물보호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놓은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당과 국가앞에 한개 단위 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탄전이 자랑하는 살림군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수천척지하막장에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탄부들속에는 2.8직동청년탄광 11갱운반중대 중대장 김성건동무도 있다.

얼마전 중대앞에 수십m 사갱구간의 운반로선을 보수할 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그러자면 적지 않은 량의 레루와 레루못, 동발목이 있어야 하였다.

탄광의 실정을 잘 알고있는 김성건동무는 솔선 앞장에서 사갱구간의 운반로선을 맑아보며 레루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되살려쓸수 있는것들을 하나하나 타산해보았다.

그렇게 하자니 품은 곱절이나 들었고 작업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중대원들에게 석탄 한줌, 레루못 하나도 나라의 재산이라고 일깨워주면서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켰다.

그의 불같은 애국의 마음에 감동된 중대원들이 너도나도 떨쳐나 필요한 자재의 대부분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보수작업을 불이 번쩍 일게 해제꼈다.

본사기자

금속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적음

합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옥색

금속재료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를

사랑과 정성으로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인간사랑의 대화원에 꽃펴난 전설같은 이야기

함흥정형외과병원 의료일군들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인간사랑의 이야기가 태여나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함흥정형외과병원 정형외과의료집단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한 소녀가 태여난지 13년만에 처음으로 대지를 활보하게 된것이다.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이 극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고마운 사회주의품속에 안겨사는 이 땅의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아름다운 선률이고 장중한 메아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함흥정형외과병원 정형외과의 안우학과장은 벌써 몇시간째 자신을 잊은듯 한자리에 앉아 일어설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가까이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한 소녀의 얼굴이 자꾸만 어려와 마음을 좀처럼 진정할수가 없었다.

근 30년을 정형외과에서 일해온 나날에 이처럼 환자때문에 착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있을 때가 과연 몇번이였던가.

이날 아침 원산시에서 살고있는 리은주라는 소녀가 언니와 삼촌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들어섰다.

나이는 13살, 제절에 맞지 않게 장화를 신은 소녀는 삼촌의 손에 끌려 의사실에 들어서서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념을 하지 않았다.

삼촌의 말에 의하면 은주는 태여나서 한번도 제절에 맞는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1년 열두달 이렇게 장화를 신고서야 겨우 밖에 나다녔다고 한다. 그러던것이 점차 철이 들어서부터는 생활에서 웃음이라고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예 문밖출입까지 단념했다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주의 장화를 벗겨본 과의료일군들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형제를 가늠하기 어렵게 통통 부어오른 발은 땀에 푹 젖어있었고 아예 발바닥이 되여 변지로 된 발등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험상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병을 좌우선천성내번첨족이라고 했다.

《선생님들을 믿고 겨우 은주를 얼려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까지 고치지 못하면 애는 영영 실망하게 될겁니다.》

삼촌의 절절한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을 애써 피하며 안우학과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선 입원하고 봅시다.》…

안우학과장은 깊은 상념에서 깨여나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눈물이 글썽해서 울려다보는 소녀에게 고칠수 있다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 자신이 몹시 원망스러웠다. 그도그럴것이 은주와 같이 두발이 다 선천적으로 안쪽으로 굽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할수 있었다.

이런 경우 두발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할수 없는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때를 짜아서 발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이 단번에 성공할수 있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어린 몸으로 수술부담을 꽤 이겨내겠는가 하는것도 문제였다.

더우기 한순간이라도 실수하여 수술칼을 잘못 놀리는 경우에는 설사 발을 돌려놨다고 해도 불구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우리 시대 보건일군이라는 자각과 함께 당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뇌리를 쳤다.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은주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야 할 꽃망울이 아닌가.)

소녀의 운명을 두고 잠 못 이루고있는 사람은 결코 과장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천번중 단 한번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수술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담당의사인 강충혁동무는 은주의 검사결과를 놓고 수십차례의 모의수술을 진행했다.

그만이 아닌 온과가 떨쳐나 환자의 수술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수술과정에 단 한건의 우발증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갔다.

병원일군들의 관심속에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약물들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첫 수술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치료는 시작에 불과했다.

손이나 발과 같이 말초부위의 상처는 자칫 잘못하면 괴사될 위험성이 때우 컸다.

게다가 어린 환자의 동통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치료사업 또한 수술 못지 않은 한초한초의 긴장한 전투의 련속이였다.

온 병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드디여 수술이 진행된지 이틀만에 석고붕대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이 카느다랗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이 성공이예요!》

눈물이 글썽해서 쥐치는 담당간호원 김복실동무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찌릿하게 해주며 울려왔다.

은주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도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미처 알수 없었다.

단지 난생처음으로 자기의 온전한 발을 보고 눈을 의심하기만 했다.

은주는 어린적에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언니의 손길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 대한 과의료일군들의 사랑과 정성은 참으로 극진했다.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이나 은주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를 내도 의사들이 달려왔고 얼굴에 땀방울이 돋을세라 간호원들이 곡진히 돌봐주었다.

순간이라도 외로와할세라 신심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며 울며웃던 그 나날들과 더불어 은주의 망막속에 새겨진 의사, 간호원들의 정깊은 눈빛과 살뜰한 손길은 그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갈망해오던 어머니의 사랑그대로였다.

1차수술이 있은지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어느날 강충혁동무와 김복실동무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의사선생님, 은주가 왜 한번도 웃지 않을가요? 이제는 병도 많이 호전되였는데 아마 어머니생각이 나서 그러지 않을가요?》

《어느 책을 보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썼더군. 자식이 칭얼대면 모래밭의 하많은 모래알도 세여줄 그런 심새하고 다심한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심장도 서슴없이 꺼내줄 그처럼 참다운 사랑이라고말이요. 우리의 정성이 그대로 은주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던 어느날 아침일찍 은주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뜻밖에도 운동신이 놓여있었다. 꿈속에서 신어보았던 흰색띠까지 두른 멋진 운동신이였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는데 문이 열리며 강충혁동무가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은주야, 신발이 마음에 드니? 우리 은주는 키가 커서 아마 달리기선수는 문제없을거야.》

이날 은주는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웃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김복실동무에게 은주는 소곤소곤 이렇게 물었다.

《간호원언니, 내가 정말 달리기선수가 될수 있을가요? 난 마음껏 뛰여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워요.》

그러는 그를 품에 꼭 안고 김복실동무는 말했다.

《노래에도 있지 않니.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모두가 안겨사는 품속에선 세상에 부러운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이 있어 은주는 2차수술까지 성과적으로 받고 병을 고치게 되였던것이다.

퇴원을 앞두고 은주는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수첩을 간호원에게 꺼내놓으며 말했다.

잊지 못할 입원의 나날 어머니가 되어주고 친혈육이 되여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그래그래, 그 고마운 사람들을, 위대한 어머니품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며 간호원언니는 수첩에 이렇게 써주었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

얼마전 강충혁동무는 은주의 큰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는 눈물절반, 웃음절반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은주가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은주에게 세상에 부러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체질화한 참된 보건일군집단에 의하여 태여난 전설같은 이야기, 그러한 기적이 너무도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는 여기에 바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있으며 그 품이 너무도 고맙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스스럼없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는것이라.

본사기자 김성민

구장군인민병원에서

그 진정이 명약이 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입니다.》

예로부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겨본것은 구장군인민병원에 대한 취재과정에서였다.

병원의 산부인과에는 한권의 두툼한 일지가 있다. 페지마다에는 이곳 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소생의 기쁨을 안고 한자한자 적은 글줄들이 씌여져있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서로 다른 그들이지만 글줄마다에는 하나와 같이 의료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차넘치고있었다.

구장군 통동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한 녀성은 오래동안 앓고있던 난치성질병을 털어버리고 두번다시 태여난 기쁨을 이렇게 리치였다.

《입원생활기간 저를 위해 극진한 정성을 부어준 리영옥과장선생님을 비롯한 의사선생님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수술장에 들어서는 저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던 고마운 선생님들,

후에야 저는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피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이지 그 정성, 그 진정, 그 사랑이 저의 몸에 그대로 흘러들어 저는 두번다시 세상에 태여났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들속에는 박천, 향산, 녕변군을 비롯한 다른 군주민들도 있었다. 이곳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오래도록 남아있던 질병마저 말끔히 털어버린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이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의료일군들의 극진한 정성과 높은 의술을 열렬히 토로한 이들.

소박한 글줄마다에 담겨져있는 격정과 기쁨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과 영예감을 안고 환자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이곳 과의 사들인 한승기, 백영희동무의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있었다.

산모들에게 꿀과 미역을 보장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 깊은 밤중에도 수십리 왕진길에 헌헌히 오르며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의료일군들.

그들은 인민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상징이라는것을 언제나 심장에 새겨안고 헌신적복무의 길, 멸사복무의 길을 끝없이 이어갔다.

그렇다. 정성이 명약이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체질화한 이런 의료일군들이 있어 이 땅 그 어디 가나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펴나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높은 실력의 소유자들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장병과 의료일군들

지난해 12월 이곳 과로는 뜻하지 않게 구급환자가 들어왔다. 환자는 많은 량의 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다 여러가지 합병증이 겹친 최중증환자였다.

순간이라도 지체하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정황속에서 채병철과장을 비롯한 이곳 과 의료집단은 약속이나 한듯 한사람같이 치료전투에 진입하였다.

의사, 간호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치료전투를 벌린 끝에 환자는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였으며 이곳 간장병과는 병원적으로 전투력이 손꼽히는 과의 위력을 또다시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의료일군들가운데는 예방부문의 의사, 간호원들도 있다.

처녀시절에 다진 명세를 지켜

승호군에 위치하고있는 어느 한 예방원에서 일하는 간호장 현혜영동무는 지난 20여년동안 환자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온 성실한 의료일군이다.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인간애를 지닌 보건일군이라고 이야기할 때면 현혜영동무는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군 한다.

의식장애가 온 환자들과 만성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헐치 않은 길을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꿋꿋이 이어갈수 있은것은 처녀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기때문이였다.

꿈이 많은 처녀시절 그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원직업을 누구보다 사랑하였고 발전소건설장에 치료대가 조직될 때에는 제일먼저 탄원하군 하였다. 이 나날 그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천길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동지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한생을 살려라!)

치료예방기관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으로 자진하여 들어온 날 그의 마음속에 울린것은 불같은 맹세였다.

때로는 환자들의 미리말에서 밥술을 떠넣어주고 때로는 중태에 빠진 환자의 곁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한 적은 그 얼마였던가. …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적극 기여한 그는 오늘도 처녀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 초소를 지켜가고있다.

대를 이어가는 랑심의 길

남포시 대안구역제3예방원 과장 한철준동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곳으로 온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환자치료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아버지로부터 그는 늘 의료일군은 흰 위생복처럼 깨끗한 랑심을 지니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참된 의료일군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던 나날 그는 입원한 환자들을 검진하던중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환자의 목에 갑자기 괴덩이가 차올라 호흡이 정지되였던것이다. 시간적여유가 얼마 없다는것을 느낀 그는 서슴없이 환자의 기도분비물을 자기가 흡입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행동은 그후에도 여러번이나 반복되였다.

어느날 해산을 앞둔 한 녀성이 입원하였을 때였다. 여러가지 병을 앓고있는 녀인을 진찰한 의료일군들은 치료가 어려울것이라고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과장은 환자를 치료할것을 결심하였다.

천리마시대 의료일군들이 과연 언제 기록된 검사수치와 환자의 상태에 모로가 되여 치료를 포기한적이 있었는가.

그는 전문과의사들과 협의도 진행하고 문헌들을 탐독하면서 치료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끝내 환자와 가족들에게 귀여운 딸애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세대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인간생명의 키사라는 영예로운 부름을 가슴에 안고 그는 당의 보건정책을 순결한 랑심과 의리로 받들어가고있다.

환자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평양시제2예방원 간호장 김미향동무는 환자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한것이였다.

과의 일군들은 또한 의료봉사활동의 표준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진단 및 치료지도서를 작성해놓고 그것을 현대의학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의료일군들이 시야를 넓히고 너도나도 과학연구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뛰여들게 함으로써 학습기풍, 탐구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였다.

과에서는 전문분야의 앞선 치료방법들을 대담하게 림상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치료방법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완강히 투쟁해나가고있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수십명의 간경변환자들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이룩하게 된것은 그러한 피타는 노력의 결과이다.

참으로 환자들에 대한 뜨거운 정성에 높은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우리 시대 보건일군의 영예가 빛난다는것을 이곳 의료일군들이 새겨온 헌신의 자욱이 잘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먼거리의료봉사를 통한 치료협의회를 짜고들고있다.
—김만유병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수십년을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평양산원 3부인과에서

평양산원에 가면 우리 녀성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우리 과장선생님이라고 존경하는 의료일군이 있다.

평양산원 3부인과 과장 허봉철동무이다. 그가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집에서 헌신의 자욱을 새겨온지도 근 30년, 과장사업을 시작한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십여년세월 변함없이 불리워온 정다운 부름인 우리 과장선생님,

이것은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가는 길에 그가 발휘한 무한한 헌신과 불같은 정성, 그의 높은 실력과 뜨거운 인정미에 대한 값높은 평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표현입니다.》

얼마전 평양산원을 찾았던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보게 되였다.

지난 3월 여러 부인병이 합병된 군관의 안해의 대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수술후에는 40여일간이나 자기 집에서 닭곰과 갖가지 영양식품들을 보장해주면서 온갖 성의를 다해 완치시킴, 28년간 특류영예군인 30여명과 군인가족 340여명을 포함한 6천여명의 구급 및 중환자치료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침…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수자들이다.

이 자료를 놓고서도 허봉철과장을 비롯한 3부인과 의료일군들이 영예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모르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왔음을 잘 알게 하는것이다.

당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산원 의사로 임명받던날 허봉철동무는 산원중앙홀에 걸려있는 보석주단을 두손으로 쓸고 또 쓸어만지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의다졌다.

(우리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위해 역만금도 아낌없이 들려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치료사업성과로 보답하리라.)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 허봉철과장은 이 맹세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한모습으로 살아왔다. 그 나날 이악하게 노력하여 부인병치료에서 손꼽히는 실력가로 자라났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복강경수술장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고 1년도 못되는 기간에 과의 의사들은 물론 산원의 수많은 의사들을 복잡한 복강경수술을 원만히 집도할수 있는 쟁쟁한 전문가들로 키워냈다.

뿐만아니라 《복강경하부인과 수술》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과학기술론문을 집필하였고 많은 의료기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지난 기간 수많은 부인병환자들을 완치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보람찬 헌신의 나날과 더불어 특류영예군인녀성이 백옥같은 옥동자를 낳은 기적이며 40년만에 선천성질병을 떼여버린 강계시의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인간사랑의 전설들이 수없이 꽃펴났다.

언제인가 동림군에서 살고있는 한 녀성이 구급으로 이곳에 입원한적이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이 녀성의 병이 보기드문 질환인것으로 하여 수술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의식이 거의나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계속되는 출혈로 하여 환자의 생명은 경각에 달하고있었다.

바로 이때 과장을 비롯한 이곳 3부인과의 의료일군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치료전투에 달라붙었다. 무차례의 대수술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치는 크고작은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치료 전기간 과의 의료일군들이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저마다 갖가지 영양식료품을 마련해오고 밤낮이 따로 없이 곁에 지켜앉아 지성을 다하고…

《제가 도대체 뭐길래…》

퇴원을 앞두고 이렇게 목메인 소리를 리치는 녀성에게 과장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동무는 환자이기 전에 우리와 한식솔이란 말이요.》

한식솔, 사랑과 정으로 높뛰는 이런 뜨거운 심장을 안고 허봉철과장은 과의 의료일군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각도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가는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의료일군들가운데는 예방부문의 의사, 간호원들도 있다.

처녀시절에 다진 명세를 지켜

승호군에 위치하고있는 어느 한 예방원에서 일하는 간호장 현혜영동무는 지난 20여년동안 환자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온 성실한 의료일군이다.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인간애를 지닌 보건일군이라고 이야기할 때면 현혜영동무는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군 한다.

의식장애가 온 환자들과 만성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헐치 않은 길을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꿋꿋이 이어갈수 있은것은 처녀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기때문이였다.

꿈이 많은 처녀시절 그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원직업을 누구보다 사랑하였고 발전소건설장에 치료대가 조직될 때에는 제일먼저 탄원하군 하였다. 이 나날 그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천길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동지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한생을 살려라!)

치료예방기관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으로 자진하여 들어온 날 그의 마음속에 울린것은 불같은 맹세였다.

때로는 환자들의 미리말에서 밥술을 떠넣어주고 때로는 중태에 빠진 환자의 곁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한 적은 그 얼마였던가. …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적극 기여한 그는 오늘도 처녀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 초소를 지켜가고있다.

대를 이어가는 랑심의 길

남포시 대안구역제3예방원 과장 한철준동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곳으로 온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환자치료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아버지로부터 그는 늘 의료일군은 흰 위생복처럼 깨끗한 랑심을 지니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참된 의료일군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던 나날 그는 입원한 환자들을 검진하던중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환자의 목에 갑자기 괴덩이가 차올라 호흡이 정지되였던것이다. 시간적여유가 얼마 없다는것을 느낀 그는 서슴없이 환자의 기도분비물을 자기가 흡입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행동은 그후에도 여러번이나 반복되였다.

어느날 해산을 앞둔 한 녀성이 입원하였을 때였다. 여러가지 병을 앓고있는 녀인을 진찰한 의료일군들은 치료가 어려울것이라고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과장은 환자를 치료할것을 결심하였다.

천리마시대 의료일군들이 과연 언제 기록된 검사수치와 환자의 상태에 모로가 되여 치료를 포기한적이 있었는가.

그는 전문과의사들과 협의도 진행하고 문헌들을 탐독하면서 치료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끝내 환자와 가족들에게 귀여운 딸애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세대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인간생명의 키사라는 영예로운 부름을 가슴에 안고 그는 당의 보건정책을 순결한 랑심과 의리로 받들어가고있다.

환자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평양시제2예방원 간호장 김미향동무는 환자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어 그들이 병치료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몸이 매우 불편하거나 난치의 병으로 진단받으면 생각을 많이 하는것이 환자의 심리상태이다.

오랜 림상경험을 통하여 환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한 김미향동무는 간호장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치료사업에 전념하도록 마음을 써왔다.

몇해전 일흔을 넘긴 전쟁로병할머니가 들어왔을 때였다. 《좋은 제도에서 오래 살고싶었는데…》 하며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심을 잃고있는 할머니의 간호를 맡아나선 그는 저녁이면 머리맡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손으로 직접 맛있는 반찬도 해오면서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였다.

한손이 없는 영예군인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러가지 보약들을 마련하여 그의 가슴에 한가득 안겨주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이러한 심례는 수없이 많다. 백여명의 환자들의 다정한 혈육이 되여 하루빨리 병이 완쾌되도록 아글타글 애써온 그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간호장이라고 존경담아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현장의료봉사활동에 진심을 바쳐

216사단 현장지휘부 의료일군 김연옥동무

삼지연군무리기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우리 의사선생님으로 불리우는 216사단 현장지휘부 의료일군인 김연옥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겨울에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의료일군으로 달려나온 김연옥동무는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건설장에서 호흡기질병을 예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그 예방치료에 좋은 보약을 만들어 리용할것을 결심하고 자기의 온넋과 정성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그는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수번에 혼한 마가목을 리용하여 보약을 만들것을 결심하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갔다. 이런 그를 남편인 김계범동무도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김연옥동무는 끝끝내 마가목으로 보약을 만들어 예방치료사업에 리용하게 되였다.

올해 5월 어느날이였다. 김연옥동무는 백두산정에서 군인건설자들이 전투를 벌린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들에게 보약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전투장을 찾아 매 군인건설자들에게 보약을 안겨주며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던 김연옥동무는 또 한가지의 일감을 찾게 되였다. 적지 않은 군인건설자들이 지대적특성으로 하여 산소부족을 느낄수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는 풍산유도 함께 만들어 보내줄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보약에 풍산유까지 가지고 백두산정에 올랐을 때 군인건설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매주 목요일이면 보약과 풍산유를 가지고 백두산정에 오르군 하였다. 백두산정에 정상적으로 오르내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택한 길을 후회하거나 주저한적이 없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정에 넘쳐 이야기한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감을 안고 사는것이 보건일군의 긍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랑심의 인간, 애국자가 많아 혁명의 성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이 아닌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김연옥동무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도덕적부패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고도의 문명》에 대해 곧잘 광고하고있다.

그들은 《물리도덕》, 《현대문명의 본보기》 등의 미사려구들을 써가면서 자본주의사회가 가장 발전되고 문명한 사회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궤변으로도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덕적위선은 착취계급의 본색이며 도덕적부패는 부르죠아사회의 필연적산물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참다운 도덕이 지배할수 없다. 착취사회의 기초로 되고있는 개인주의는 진실한 도덕의리와 량립될수 없으며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에는 도덕의리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참다운 도덕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동지적사랑과 단결,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다.

각계각층의 리해관계가 완전히 대립되여있으며 자본가계급, 독점재벌들의 요구와 리익만이 절대화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인간의 고상하고 진정한 도덕이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은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절대적권한을 행사한다.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압박과 착취의 대상으로,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계급적모순과 불평등, 대립관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가치관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 전해와 관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것이 진리이고 개인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이 행동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도덕관념이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고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하여 산생되는 계급적모순과 사회적불평등은 건전한 물리도덕을 파괴하고 도덕적부패성을 낳는 근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날로 심화되고있는 도덕적부패성은 황금만능의 생활방식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좌우지한다. 돈이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결정한다. 자본주의는 사랑과 인정, 신뢰와 의리로 맺어져야 할 인간관계를 물질적관계, 금전관계로 고착시켜놓았다. 이러한 물질, 금전관계는 사람들을 초보적인 향심과 의리마저 저버리고 돈밖에 모르는 황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 로동력과 재능, 향심과 명예, 애정과 자기 장기까지 판다. 돈은 그 어떤 악덕도 미덕으로 만들수 있고 정신적불구자도 권력의 자리에 오를수 있게 한다.

개가 주지사로 선거되는 웃지 못할 정치만화가 연출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사실상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개가 시장이 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믿기 힘든 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있다.

돈있는자는 돈없는자를 해치며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워야만 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고유한 생존원리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자는 사생결단으로 남을 디디고 올라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개인의 리익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우위에 놓고 남이 싫어하건말건, 남에게 해가 되든말든 상관하지 않고 제 리속만 챙기려 한다. 자기만 잘 먹고 잘살며 무제한한 자유와 향락을 누리면 된다는것이다. 지어 자기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과 집단을 희생시키는것을 있을수 있는 일로,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죠아도덕은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로 부추기면서 인간관계가 서로 반목질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한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승냥이가 되여야 한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도덕에 물젖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점이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과 관점이 사회생활전반에 막심한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고있다. 남편이 안해를, 자식이 부모를,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살인범죄들이 례상사로 일어나고있다.

친혈육들사이에도 죽일네기를 하는 끔찍한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도덕적부패가 이미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인간애와 도의, 의협심이 말라버린 랭혈동물들의 세계이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는 도덕적부패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도덕적부패는 반동적인 통치계급에 의해 더욱 조장, 촉진되고있다.

반동지배계급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억누르고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데 막대한 자금을 랑진한다. 통치계급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써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반동통치배들은 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대중보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부르죠아사상과 인종주의, 인간증오사상을 비롯한 각종 반동적사상조류들과 말세기적인 생활풍조들을 광범히 류포시켜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흐려놓고 그들을 더욱더 무지몽매하게 만들고있다.

폭력과 색정,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와 노래, 춤과 소설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변질시키고있다. 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텔레비죤오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련속물가운데서 폭력화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 피비린내나는 폭력문화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폭력을 일종의 유희, 도락으로 여기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내고있다. 이로 하여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부르죠아도덕이 지배하고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며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범람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해피망측한 옷차림과 머리단장, 임묵을 한 청년들이 거리낌없이 네거리를 활보하는것은 그것들이 부르죠아도덕에 의해 합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도덕적부패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심화되고있는 도덕적부패는 그 어떤 처방으로도 없앨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는 제스스로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리 현 도

비렬하고 파렴치한 반총련망동

일본반동들이 반총련모략책동에 더욱 피를 올고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재복입은 강도무리로 악명높은 일본경찰패거리들은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부리사장 겸 국제부장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근거는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와 일본의 《외환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였다는것이다. 이른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날강도적인 수색소동을 벌린 경찰깡패들은 동포의 손전화기와 플류머, 각종 서류들을 압수하였다. 이번 강제수색은 이 동포가 최근 몇해동안에 세번째로 걷는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심과 악의적인 편견으로 가득찬 일본식《법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살풍경이다.

더더욱 격분스러운것은 경찰깡패들이 저들이 조작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동포의 아들과 동생, 지어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회장의 집과 사무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한것이다.

총격적인 사건조작과 그의 여론화를 위해 현재적인 강제수색소동을 벌리는 일본반동들의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의 국내문제, 정치적위기해결을 위한 희생물로 삼아 탄압하는것이 하나의 수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그 기질은 더욱 위험하고 파렴치한 양상을 띠고있다.

일본경찰은 우리 동포의 《비법거래》라는 날조설을 내돌리면서 끈질긴 추적, 조사놀음을 벌리고 그가 거래하던 외국기업들에게까지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민 참새무리같은 사이비언론들을 사촉하여 터무니없는 모략보도들을 날리게 하면 끝에 이런 폭거를 저질렀다.

이번 망동은 사회전반에 반총련기운을 대대적으로 고취하여 저들의 범죄적인 총련말살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비렬성, 민족배타주의적인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저들의 의도와는 달리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세계적인 전략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무아몽이 터진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가적테로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갈수록 우심해지는 총련기관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협박, 테로행위는 그 구체적표현이다. 최근 일본정계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는 수작들이 어지럽게 흘려나오고있는것을 념두에 둘 때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우에서 감행된것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보다 싶이 이처럼 좀스럽고 악착하다.

더무너없는 죄를 뉘우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모진 탄압과 박해를 가함으로써 어머니조국과 그들사이의 혈연적련계를 끊어버리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더러운 속심이다.

재일동포들이 숨쉬고 살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일본의 정치불망나니들의 망동은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온갖 탄압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며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지난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계속 짓밟는 일본반동들의 간악한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우대해야 할 법적, 인도적의무가 있다는것을 한두번만 언급하지 않았다.

부언하건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뒤에는 우리 공화국과 전체 조선민족이 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박해나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인정하고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더욱 치솟게 될것이며 그만큼 대일결산도 철저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허 영 민

남조선에서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세계련대행동 전개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15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1348차 수요집회 및 세계련대행동이 전개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성폭력피해자들, 《재일한국청년동맹》, 일본의 《환경인권평화포럼》을 비롯하여 학생, 시민 등 8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이 곧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시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리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박근혜《정권》의 산물인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전범국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전시 성폭력범죄재발방지 강구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선전활동을 벌렸다.

이날 세계 10개 나라의 43곳에서도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련대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8.15를 계기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지난 8월 11일 서울의 곳곳에서 통일운동단체들은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것을 요구하여 집회와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이보다 앞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와대앞에서 서명운동선포식을 가진 단체들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군국주의부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중단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도 서울의 국방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단체는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밝혀져있는것만큼 일본과의 군사협정도 폐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와 일본이 한것을 보면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조차 하지 않고있는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군사적폐청산 1호로 규정하고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군사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각계 단체들과 련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긴장완화의 흐름을 맞아와하지 않으면서 군국주의마차에 올라 재침의 길로 질주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본사기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친일역적

남조선에서 대법원 원장이였던 양승태의 사법통락사건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고있는 속에 이자가 박근혜여도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친일역적질을 일삼은 사실까지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일제강점시기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0여건을 정리한 대법원 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되였다.

그에 의하면 양승태와 그 일당은 박근혜여도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뿐아니라 아래단위들의 재판도 모두 중지시켰다.

문건에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1안과 시간을 끄는 2안가운데서 2안이 적합하다고 씌여져있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우려》된다는 박근혜여도의 수작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폭로된데 의하면 양승태는 박근혜패당이 일본반동들과 야합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꾸며낸 직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당시 대법원에 들고앉아있던 양승태일당은 《소송형식이 부적합하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자들은 남조선의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느니, 《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수 없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남조선입본《협정》으로 피해자개인이 손해배상소송을 낼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황당한 론거까지 들고나왔다고 한다. 양승태일당의 이런 고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이 한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양승태일당의 망동이야말로 민족의 얼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친일매국노들의 쓸개빠진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일제식민지통치가 끝장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지난날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잊지 않고있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어 치욕과 죽음을 강요한 일제의 치떨리는 만행들은 오늘까지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간악한 식민지파쑈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력사외곡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도 없는 일본반동들은 과거에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범죄 등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저들의 치떨리는 죄악의 력사를 한사코 미화분식하고있다.

이것을 묵인한다면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일본반동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과거죄악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일본의 과거죄행을 폭로단죄하며 피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매국근성이 뼈속까지 들어찬 양승태는 높아가는 전민족적인 반일기운에 등을 돌려대고 박근혜여도의 부추김밑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기각시키였다.

양승태일당이 박근혜여도와 공모결탁하여 사법부를 친일매국정책실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각계층 인민들의 정당한 반일투쟁에 찬물을 끼얹은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지금 더러운 친일역적들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량심한 인민들은 친일에 환장한 박근혜역도와 양승태일당의 결탁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승태의 사법통락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발언자들은 양승태가 외교부와 짜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획책한 죄행을 까밝히면서 사법권을 람용한 양승태는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격분을 터쳤다.

우리 겨레는 일제의 치떨리는 죄악을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민족을 반역하며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역도와 양승태일당의 절대로 단호히 징벌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민군합동수사단이 기무사의 음모를 폭로

11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근혜《정권》시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이 군사쿠데타계획이였다고 민군합동수사단이 밝혔다.

민군합동수사단은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을 검토한데 의하면 군부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작성하게 되여있는 《계엄》대비문건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기무사령부의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작성되였다. 그 방안들은 《국회》에서 《계엄령》해제문제가 상정될 경우 여당의원들을 설득시켜 의결에 참가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야당의원들을 체포구속하여 의결수를 모자라게 만드는것이다.

민군합동수사단은 이러한 방안들이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게 되여있는 현행《계엄법》과도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군사쿠데타음모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기무사령부의 문건이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것으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의심할수 있는 사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호르무즈해협정세 대이란제재로 긴장해지는

얼마전 미국이 이란핵합의탈퇴선언에 따른 대이란제재재개를 공식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한 단계별목표들이 제시되였다.

1단계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코트》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이란의 귀금속, 흑연, 알루미니움, 철, 석탄, 소프트웨어, 화폐 등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이란의 원유수출차단이 핵심인 2단계제재는 11월초부터 시작될것으로 보고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금 발동한 미국의 조치에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의 초점은 또다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정세발전에 집중되고있다. 이전부터 이란은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여 자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수 있다는 경고를 한두번만 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금지할 경우 원유를 수송하는 그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사이에 위치하고있으면서 페르샤만과 오만만을 이어주는 호르무즈해협은 《원유의 대동맥》, 《서방의 목구멍》으로도 불리우고있다. 그것은 이곳이 페르샤만의 유일한 출구로서 만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나 서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수송되고있기때문이다.

최신자료에 의하면 해상으로 수송되는 세계원유의 20~3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있다. 일본은 자국에 필요한 원유의 80%, 천연가스의 20%를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들여오고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당하면 세계적인 원유위기의 발생,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이 초래되게 된다. 시방경제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들게 된다.

지난 수십년간 이란은 외부로부터 군사경제적압박이 가해질때마다 호르무즈해협봉쇄라는 주패장을 내들군 하였다. 실지로 이란은 1980년대에 있은 이란-이라크전쟁시기에 기뢰를 리용하여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적이 있다.

미국은 추종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봉쇄는 더이상 허용할수 없는 《붉은 선》이라고 하면서 용납하지 않을 립장을 표시하여왔다. 이미 페르샤만수역에 함대무력을 전개해놓은 미국은 이 수역에서 해협봉쇄해제를 가상한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이란도 자체의 해군무력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으로 미해군의 움직임에 대처하고있다. 최근에 이란은 페르샤만수역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연습에는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의 함선 및 함정 약 100척과 수많은 군인들, 비행무대들, 해안미싸일포중대들을 포함한 무력이 동원되였다.

이란해군은 정상적으로 이곳에서 순찰임무, 군사훈련과 같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습은 관측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출을 제한하고있는 조건에서 예민한 수역인 호르무즈해협가까이에 이란의 적지 않은 무력이 집중되였기때문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의 주요목적이 세계에네르기공급의 중요한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평하고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란해군은 다량의 기뢰를 보유하고있는데 기뢰부설에는 거의 모든 함선들이 리용될수 있다. 더우기 기뢰부설은 매우 짧은 기간내에 진행될수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데 단 몇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호르무즈해협의 가장 좁은 수역의 너비는 50km정도인데 만일 초대형유조선 1~2척이 이곳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배들의 항행이 마비될수 있다. 미해군의 함선집단들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있을수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대규모함대무력을 이 해협을 통해 페르샤만수역에로 긴급전개시켜 해상에서의 전략적주도권을 장악할것을 타산하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골치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미중앙군사령부 대변인은 어느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이란이 페르샤만과 호르무즈해협, 오만만에서 해상작전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이를 주시하고있으며 항행의 자유와 국제수역들에서의 자유로운 상업적항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반자국가들과 계속 사업할것이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무력까지 인입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미 여러 대중보도수단들은 이란에 대한 타격이 8월에 가해질수 있으며 이때 오스트랄리아와 영국이 미국을 지원할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당하면 그것은 곧 이란과 미국사이의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 될수도 있다. 쉽에한 대결마당으로 되고있는 호르무즈해협, 이곳은 날이 갈수록 긴장이 격화되는 열점수역으로 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날로 격화되는 로씨야-나토대결관계

얼마전 로씨야남부군관구의 한 사격장에서 기계화보병구분대들과 흑해함대 해군륙전대 구분대들의 실탄사격과 함께 쌍방사이의 모순과 적대감은 가까운 시일내에 해소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로씨야남부군관구는 흑해연안을 포괄하는 로씨야의 서남부지역에 대한 방위임무를 맡고있다. 그런데 최근년간 이와 린접한 국경지역에서 나토의 군사활동이 적극화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로씨야국방상은 어느 한 회의에서 전략적인 서남방향에서 증대되고있는 국가안전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대응조치로서 전략적억제와 남부군관구의 전투력제고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로씨야남부군관구에서 진행하고있는 군사훈련들은 전투력강화와 함께 나토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신호라고 볼수 있다. 나토의 영향력이 강화되고있는 발트해연안나라들과 린접한 로씨야서부군관구에서도 역시 군사훈련의 회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가 높아지고있는것도 이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로씨야는 전략무력의 항시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는것과 동시에 군대내에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남부군관구에서는 최신형항공종합체 《찐찰》이 이미 시험근무에 들어갔다. 가까운 시일안에 미싸일종합체 《아반가르드》가 위역하게 될것이며 1년후에는 대륙간탄도미싸일 《싸르마트》도 실전배비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는 이 모든 조치들이 나토의 비우호적인 군사적움직임에 대한 반사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실지로 로씨야는 최근년간 벌어지고있는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을 심상치 않은것으로 보고있다.

나토는 크림통합과 우리아정부에 대한 지원, 영국의 쏠즈버리시에서 발생한 스크리빨중독사건 등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로씨야를 비난하면서 그것을 서방세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보사하고있다.

《로씨야위협》설이 날로 부각되고있는 속에 나토성원국들은 군사비를 보다 늘일데 대한 압력을 받고있다.

로씨야와 국경을 접한 유럽나라들에서는 지휘센터들이 새로 개설되고 군사하부구조가 정비, 확대되고있으며 군수물자들이 축적되고있다.

무력증강책동도 계속되고있다. 동유럽에는 현재 1만 5000명의 나토병력이 전개되여있다. 2014년에 그 수는 2000명이였다고 한다.

미국주도하에 유럽지역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공격형으로 쉽게 전환될수도 있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완성되여가고있다.

군사훈련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있다. 올해초부터 벌어진 나토의 100여차례의 군사훈련에는 8만명의 병력이 동원되였는데 이것은 5년동안에 10배나 증가된것이다.

무력증강과 함께 벌어지고있는 나토의 기구확대움직임도 로씨야의 경계감을 자아내고있다. 쯔르나고라의 나토가입이후 마께도니아의 나토가입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있다. 그루지야,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5월에는 핀란드와 스웨데에의 나토훈련참가와 나토지휘체계리용가능성을 예견하는 조약이 조인되였다. 동시에 나토는 이 나라들의 영공과 령해에 자유롭게 접근할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사실들은 오래전부터 표면화되여오던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힘겨루기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늘 로씨야와 나토사이에는 극히 위험한 군사적대결구도가 형성되여있으며 쌍방사이의 모순과 적대감은 가까운 시일내에 해소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있다.

ㄱ-181132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등록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원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